

〈제 7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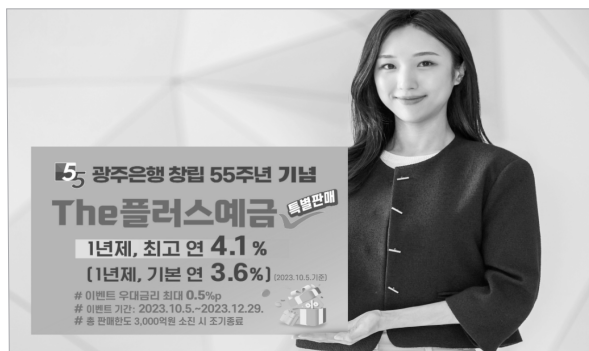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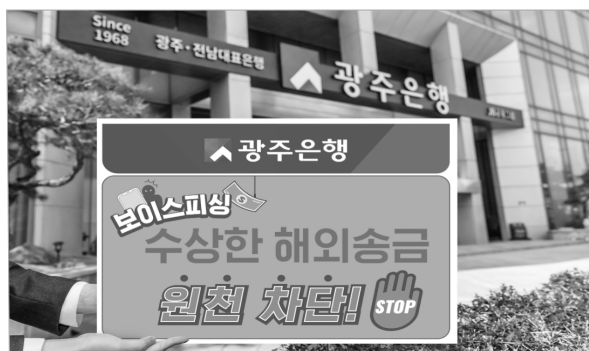
◆창립 55주년 기념 ‘The플러스’예금 3000억 특별 판매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새롭게 출시하는 ‘The플러스예금’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창립 55주년 기념 고객감사 이벤트’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The플러스예금’은 ▲6개월제 최고 연 4.0%(기본 연 3.5%) ▲1년제 최고 연 4.1%(기본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기간 중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일당 수상한 해외송금 잇따라 막아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송금 하려던 범죄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광주은행 외환사업부는 해외송금 사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평소 고객의 금융 거래 패턴과 다른 고액의 해외송금 시도를 포착,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총 6건, 미화 101,740불(한화 1억3천3백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확인하여 해외로 송금하려던 금융사기 일당의 범죄 시도를 막아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 모니터링에 반영해 고객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현지법인'다운 사회공헌에 귀감



지난 1995년 현지법인으로 출발해 올해 28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는 어느덧 호남을 대표하는 유통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역 상생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역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지역현지법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까지 광주신세계 기부 활동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메세나 활동, 지역 기업과의 상생 등 한손에 꼽을 수 없다.

특히 나눔경영이 눈길을 끈다.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에 그치지 않고 희망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문화에 앞장서면서 귀감이 됐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대표 유통 기업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28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눔 경영을 지역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는 7일 광주 시민안전체험한마당에서 안전체험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안전체험한마당은 지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 하고자 광주광역시 및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관련 기관·단체가 협업해 건강검진,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체험부스 운영,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사다.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안전사고는 일터를 포함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한전KPS

◆남아공 인재 양성에 1억3000만 원 지원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대학(UP)에서 공부하는 공대 재학생 29명에게 183만 랜드 (약 1억3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전KPS는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다.

남아공 프리토리아의 캐피털 멜린 메인 호텔에서 한전KPS가 프리토리아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박철주 남아공 대사, 이정남 한전KPS 남아공 지사장, 프리토리아대 이노센트 파키라이 인문학부 학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한전KPS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 리더이자 혁신가,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한전KPS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 나아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한전KPS는 에스콤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방문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최근 임직원들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해양에너지는 지난 8월에 입사한 채용연계형 인턴사원 10여명과 외부 활동 일환으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관람을 진행했으며 지난 9월에는 팀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했다.

앞서 해양에너지는 지난 6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입장권 1천만원 상당을 구매한 바 있다. 또 회사 순찰차량 200여대를 활용해 광주·전남 전역에서 홍보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22회 금요조찬포럼〉

작은 변화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경석 개그맨)

1622회 금요조찬포럼은 서경석 개그맨을 초청하여 「작은 변화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첫째, 耳(귀)자를 한자로 써보라고 하면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웬만하면 한번보고 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耳(귀)는 말을 하면 듣는거와 같습니다. 聽(들을 청)자는 제대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聽(들을 청)자를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면 임금님처럼 소중한 나의 귀로 10개의 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집중하면서 듣는게 진짜 듣는 것이다. 경청이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듣는거와 제대로 듣는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청의 3원칙은 1(한번들으면) 2(두번 반응하고) 3(세번 꼬덕여라)입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93년에 데뷔해서 방송 30년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 어렵다고 생각되는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방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을 떠올립니다. 뭔가 강력한 고통을 나한테 선사할 것처럼 예상되는 일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자신감이 샘솟습니다. 경충 회원분들도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닥칠 뭔가 힘들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떨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쉬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뭔가를 하려고만 하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바로 창의적이지 않은 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 이미 행해져 있는 거 나와 비슷한 나이의 경영인의 삶의 전형을 분석하고 거기에 PMI(PLUS, MINUS, INTERESTING) 작업을 합니다. PMI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인터레스팅한 방식으로 더하고, 빼면 바로 창의의 출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다른 방송사의 ‘아빠 어디가’에서 PMI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보다 더 인기 있는 방송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 욕했습니다. 표절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빠 어디가’는 종영을 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생각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지 않은 일의 방식, 사고는 안주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걸 이뤄 놓았다고 해서 안주하는 삶을 살수도 있지만 그런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어제보다 생기가 넘치는 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통계청,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0.4)

- (생산) 2023년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5.5%)과 서비스업(0.3%) 등에서 생산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2.2% 증가
 -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Delta 1.3('23.4) \rightarrow 0.7(5) \rightarrow 0.0(6) \rightarrow \Delta 0.8(7) \rightarrow 2.2(8)$
 - ※ 8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2.2%)은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Delta 3.8\%$)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5%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Delta 1.1\%$)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 (3.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3년 8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3.4%로 전월대비 3.4%p 상승
 -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0.9('23.4) \rightarrow 72.8(5) \rightarrow 71.7(6) \rightarrow 70.0(7) \rightarrow 73.4(8)$
- (제조업 재고율*) 2023년 8월 제조업 재고율은 124.6%로 전월대비 0.3%p 상승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소매판매) 2023년 8월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0.2%) 판매가 늘었으나, 내구재($\Delta 1.1\%$), 준내구재($\Delta 0.6\%$)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 $\Delta 2.6('23.4) \rightarrow 0.6(5) \rightarrow 0.9(6) \rightarrow \Delta 3.3(7) \rightarrow \Delta 0.3(8)$
- (설비투자) 2023년 8월중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3.1%)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6%)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3.6% 증가
 - ※ 8월 설비투자의 전월대비 증가 폭은 2022년 8월(8.9%) 이후 최대 증가 폭

Ⅲ. 노동경제동향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전월대비 0.2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전월대비 보합)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10.1)

- (총괄) 2023년 9월 수출은 546.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했으며, 수입은 509.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
 - ※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5.8%) 감소 전환 후 12개월 연속 감소. 다만, 2023년 9월 수출 감소폭은 2022년 10월(△5.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 수출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15.4('23.5)→ △5.9(6)→ △16.2(7)→ △8.3(8)→ △4.4(9)
 - 8월 무역수지는 수출(△4.4%)보다 수입(△16.5%)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7.0억달러 흑자를 기록(4개월 연속 흑자)
 - ※ '23년 9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1년 9월(42.8억 달러 흑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
 -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27.5('23.4)→ △22.1(5)→ 11.5(6)→ 16.5(7)→ 8.7(8)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수출의 약 75% 차지) 중 선박, 일반기계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 컴퓨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9개 품목은 감소
- (국가별) 對중남미(18.2%), 對미국(8.5%), 對EU(6.5%)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 對중국*(17.6%), 對아세안(8.0%), 對중동(2.2%)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
 - * '23년 9월 對중국 수출은 110.0억달러를 기록하여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

◆ 통계청,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0.5)

-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해 2023년 5월(3.3%) 이후 5개월 만에최대폭으로 상승
 - ※ 소비자물가는 '23년 2월(4.8%)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으나, 8월에 다시 3%대에 진입

Ⅲ. 노동경제동향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3.3('23.5)→ 2.7(6)→ 2.3(7)→ 3.4(8)→ 3.7(9)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의류 및 신발(7.8%), 기타 상품 및 서비스(5.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6%)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19.1%)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4.2%)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2023년 9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고용노동부,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9.27)

〈 고용 부문('23.7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8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4천명(1.8%) 늘어나며 '21년 3월부터 30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94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1.9%) 감소했고, 이직자는 94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4천명(4.8%) 증가

〈 근로실태 부문('23.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6만 3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원(1.1%)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1.7%) 감소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21일)함에도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한것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

[1~7월 누계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7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4만 1천원으로

Ⅲ. 노동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8만 5천원(2.2%) 증가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7월 누계, %) : [300인 미만] 2.1, [300인 이상] 1.4

○ (총 근로시간) 1~7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1시간(△0.1%) 감소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7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대비 2일 증가,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한 영향

◆ 한국은행, 「2023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9.27)

○ 2023년 9월 업황BSI는 73*으로 전월대비 2p 상승하였으나, 2023년 10월 업황전망BSI는 73으로 전월과 동일

* 업황BSI 추이 : 76('23.5)→ 76(6)→ 74(7)→ 71(8)→ 73(9)

- (제조업) 9월 업황BSI는 68*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했고, 10월 업황전망BSI는 67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73('23.5)→ 73(6)→ 72(7)→ 67(8)→ 68(9)

- (비제조업) 9월 업황BSI는 77*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했고, 10월 업황전망BSI는 77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8('23.5)→ 77(6)→ 76(7)→ 75(8)→ 77(9)

◆ 한국은행,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9.26)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월중 99.7로 전월(103.1)대비 3.4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98.0('23.5)→ 100.7(6)→ 103.2(7)→ 103.1(8)→ 99.7(9)

Ⅲ. 노동경제동향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66)는 전월대비 6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74)도 전월대비 6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147)는 전월과 동일, 임금수준전망CSI(117)는 전월대비 1p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9월 3.3%로 전월과 동일
 -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5('23.5)→ 3.5(6)→ 3.3(7)→ 3.3(8)→ 3.3(9)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60.9%), 석유류제품(54.9%), 농축수산물(37.4%)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9월 4.1%로 전월대비 0.1%p 하락
 - ※ 물가인식 추이(%) : 4.7('23.5)→ 4.6(6)→ 4.3(7)→ 4.2(8)→ 4.1(9)

2. 노사 동향

◆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고용부는 노조의 참여 독려

- 고용부는 10. 5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강조
 - ※ 노조법 시행령(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및 소득세법 시행령(회계공시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세액공제)은 10. 1부터 시행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의 적극 동참 당부
- 양 노총은 산하 조직에 회계공시 불이행 지침을 내리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환급세액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노조 회계공시를 둘러싼 노정갈등 지속 예상
-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공시제도 등 노동개혁 정책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 ※국회국정감사 : 10. 10 ~ 10. 27
-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 등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여야에 국정감사에서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

◆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입법 요구

- 한국노총은 10. 5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 ※ 한국노총은 지난 8. 17 ~ 9. 15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관련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해당 법안은 현재 환노위에 회부됨.
- 한국노총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므로, 2025년부터 정년 65세를 위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

Ⅲ. 노동경제동향

- 한편,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통한 고령층 계속 고용 관련 논의 지속
 -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좌장 : 이영면동국대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상임위원)」를 발족해 임금체계개편과 연계한 고령층계속고용 등을 주요논의의제로 선정하고, 현재까지 6차례 회의개최
- 경사노위는 지난 8. 20 단순 정년연장만으로 청년 취업, 기업 부담 가중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연구회 논의 결과를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